

남원 도자 전시관 건립 본격화

전북자치도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남원시가 추진 중인 남원 도자전시관(가칭) 건립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통과했다.

이번 결과는 남원이 지닌 도자문화의 역사성과 시민과 국내외 도예인이 함께 구축해 온 창작 생태계가 공공미술관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또한 남원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전시관 기본·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까지 확보했다. 행정적 검증과 국비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도자전시관 건립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남원은 조선시대 왕실 백자 생산지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1999년 개설된 시민도예대학과 14회째 이어지고 있는 남원국제도예캠프를 통해 교육·창작·교류가 결합된 독자적 도자문화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남원의 도자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린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전평가에서 △남원 도자의 역사적 위상과 지역성 △시민 참여와 작가 교류를 통해 형성된 창작 기반 △국내외 도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남



남원시가 추진 중인 남원 도자전시관(가칭) 건립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통과했다.

원도자전시관은 이러한 강점을 집약해 전시·교육·체험·창작·아카이브 기능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현대 도자 전문 공립미술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자 전시관은 합과우 예술특화지구가 조성 중인 남원의 핵심 문화지대와 정책적·프로그램적 연계를 통해 도시 전반의 문화적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합과우 지구는 현대유희공예관, 시민김병종미술관 2관, 어린이 예술마당,

예술마루(복합문화관), 예술체험존, 예술술 등 전시·교육·체험·관광 기능을 집약한 문화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다.

도자 전시관은 이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도자·유희·목공예·현대미술 간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아동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역 관광 동선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는 등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논콩 수확 농작업 대행 완료

노동력 절감·생산성 향상 기여

임실군이 지난 11월부터 추진해온 논콩 수확 농작업 대행사업을 12월 5일 기준으로 전량 마무리하며, 지역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논콩 농작업 대행은 363개 농

가, 241ha 규모로 진행됐으며, 특히 대형료를 전년도 75원/㎡에서 70원/㎡로 인하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작업 대행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정비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정비 점검과 부품 교

체를 진행했고, 이에 더해 숙련된 전문 인력과 콤팩트를 투입해 수확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군 농작업 대행단은 작업 대행 운영 중 수확 적기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작업 지연을 최소화했고 작업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강천산배 유소년 축구대회서 이동국 축구교실 열어

순창군이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유명 선수와 연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2025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등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

는 전국 각지에서 48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순창을 방문해 지역 상권 전반에 활기를 더했다.

대회 기간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은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한 원포인트 레슨이었다. 이동국 선수를 직접 만나 축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400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군은 이를 계기로 각 종목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 개최되는 스포츠대회에서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포츠마케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ICT 메이커톤 대회 개최

103명 학생 참여 전문문화·첨단 기술 연결 융합적 사고 역량 키워

남원시가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두이노 및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ICT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해 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 대회는 SW미래채움센터가 주관하며,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플레이코딩 유한책임회사가 운영하고 남원시가 후원한다.

참가 학생들은 정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AI와 ICT 기술이 담긴 정통문화, 100회를 맞이하는 춘향제의 미래 아이디어'에 맞춰 미래형 축제 모델을 구상한다.

이번 2025년 ICT 메이커톤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24개팀, 총 103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 대상은 남원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경험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단



순한 코딩과 기술 실습을 넘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를 기르며, 팀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IoT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정통문화와 최신기술을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이번 2025년 남원시 ICT 메이커톤 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IoT와 AI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경험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ICT 기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업환경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모두 적함'

순창군은 올해 시행한 '농업환경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토양과 농업용수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8일 밝혔다.

군은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안전한 농업 생산 기반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자 농업용수 취수 지점과 주요 재배지 토양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왔다.

올해는 토양 중금속 100건과 농업용수 100건(지하수 86건, 하천수 14건) 등 총 200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

며, 토양에서는 카드뮴, 납, 수은 등 8종의 중금속을 분석했으며, 지하수는 pH, 염소, 비소, 농약류 등 14개 항목을, 하천수는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총유기탄소, 용존산소 등 5개 항목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지하수에서는 카드뮴·비소·시안 등 유해물질이 검출기준 이하로 확인됐다. 하천수 또한 유기물질 합량과 용존산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양호한 농업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수지초 드론로봇대회 예선 통과자 20명, 국제대회 본선 참가

남원 수지초는 서울 코엑스 A홀 한국무역센터에서 열린 2025 G-PRC FINAL 서울 코엑스 국제드론로봇 대회 본선에 남원 G-PRC 드론 로봇 대회 예선 통과자 1~5학년 2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남원시 G-PRC 대전과 10월 18일 둘째날 남원시 예선 전국대회를 치르고 난 금은동 수상자들이 이번에는 서울 본선에서 열리는 더 큰 무대에 도전한 것이다.

대회에는 국제 선수를 포함 1200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스피드 드론부문에 나날 계획이다.



영 학생 등 2명, 은상에 5학년 이한빈, 김유빈 등 2명, 동상에 1학년 이우빈 군 1명, 장려상 4명, 특상 2명이 수상하였으며, 로봇 과목은 은상에 3학년 이민준 1명, 동상에 5학년 기성환 1명, 장려상 5명, 특상 2명 등이 입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 '우수'

임실군 보건의로원이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영양의 날 기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에서 전국 229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기관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실적을 평가해 국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된다.

올해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임실군이 그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군민의 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사업 △생활밀착형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건강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영양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소방서, 겨울철 음식점 주방 화재 위험 경보

겨울철이 되면 난방기 사용 증가와 실내 활동이 늘면서 음식점 주방의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과정이 많은 업장의 경우 후드·덕트·조리대 주변에 기름때가 쉽게 축적돼 작은 불티에도 화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단 불이 붙으면 내부 구조물과 조리설비로 빠르게 번져 초기 진압이 어려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창소방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겨울철 음식점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는 주기적인 후드·덕트 청소, 조리기구 주변 정리정돈, 가스밸브·전열기구 점검 등 기본적인 관리 외에도 K급 소화기 비치, 자동소화설비 작동 여부 확인, 기름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 실천 중심의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주방 내 불연재 사용 확대와 조리공간 이격 확보도 화재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